

1 대 99 사회 <세계경제 4 편>

얼마 뒤면 미국 대선이다. 내가 투표할 대통령 후보는 정해져 있지만, 이 글은 어느 특정 정당을 두둔하거나 상대 정당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

지난 8 월 말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은 이른바 ‘공급 측면의 경제학’을 정강정책에 새삼 명시했다. 부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면, 부자들은 그 돈을 기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고용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증가됨에 따라 서민들 경제가 나아지고 국가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 부자 감세 정책은 어제 오늘의 정책이 아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즐기치게 주장해온 공화당의 핵심정책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미 의회조사국 (CRS) 분석 결과, 1950 년대 4.2%였던 평균 GDP 성장률은 2000 년대 들어 1.7%로 푹 떨어졌다. 반면에 1945 년엔 단 4.2%에 그쳤던 소득수준 최상위 0.1%가 미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7 년엔 12.3%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50%였던 최상위 0.1%의 소득세율은 25%로 절반으로 줄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 고용창출이나 경제성장 촉진에는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극소구에 해당하는 0.1%의 부자들이 미국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배로 늘어난 반면, 세금은 과거보다 절반밖에 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민주국가인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의료보장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현격히 떨어지며, 대학교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높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 해도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미 진보적 격월간지 < 머더존스 > 는 지난해 3·4 월호에서 "지난 30 년 동안 미국이 이른 경제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가구당 연평균 2700 만달러(약 300 억원)를 벌어들이는 소득수준 상위 0.01%가 차지했기 때문"이라며 "소득수준 상위 1%가 연평균 101 만 9089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 반면, 하위 90%의 평균 소득은 2 만 9840 달러에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가구당 보유 자산 규모도 마찬가지다. 경제위기 직전인 2007년을 기준으로 상위 1%가 미국 전체 자산의 34.6%를 차지한 반면, 하위 90%는 26.9%에 그쳤다. '1 대 99의 사회'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더구나 2007~2008년 부동산 거품이 터져 미국의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자료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 하위 60%에 해당하는 가구의 보유자산 가운데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른 반면 상위 1%는 주택 비중이 10% 남짓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부자들의 자산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사이 깨진 기록이 하나 더 있다.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이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2003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부자 감세' 정책이 그 배후다. 미 국세청(IRS)이 지난 6월 초 낸 자료를 보면, 1995년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400대 갑부의 평균세율은 29.93%였던 게 2007년 16.63%까지 떨어졌다.

미국 부자들은 돈이 많다. 많아도, 정말 아주 많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을 예로 들어보자.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9월 19일 내놓은 '2012년 미국 400대 부자' 자료를 보면, 게이츠 회장의 재산은 약 660억달러(약 73조 8천억원)다. 세계은행(WB)이 내놓은 지난해 지구촌 19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순위표를 놓고 보면, 게이츠 회장의 개인 자산 규모는 65위를 차지한 에콰도르(670억달러)와 견줄 만하다. 국가 전체가 한 해 만들어내는 경제적 가치가 게이츠 회장의 개인 자산보다 적은 나라가 무려 126개국이나 된다는 뜻이다. 미국의 '400대 부자' 반열에 오르려면, 적어도 175위보다 많은 11억달러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들 400명의 평균 재산은 42억달러로, 지난해에 견줘 4억달러나 늘었다. 자산 가치를 합산하면 무려 1조 7천억달러에 이른다. 전년 대비 13%나 뛴 규모다.

세계경제로 보면, 부자나라들은 세계 생산고의 80%를, 국제 무역의 70%를,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70~90%를 차지한다. 부유국들이 막강한 영향력으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든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대외 원조를 해주는 조건이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정책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악한 삼총사’ 즉 IMF, 세계은행, WTO 이다. 이 삼총사들은 부자 나라들에 의해 통제되고, 부자나라들이 원하는 나쁜 사마리아인 같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한다. 특히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 산업 규제, 농산물 가격, 노동시장 규제, 민영화 등, 개발 도상국들의 모든 경제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다. 1990 년대 들어와서는 차관에 이른바 체제 관련 용자조건을 붙인다. 그들이 개입하지 못할 영역은 없다. 심지어 출산율 결정, 인종통합, 남녀 차별, 문화적 가치까지 모든 사안에 대하여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런 결과로 개발 도상국들의 성장 저하, 불평등한 소득 분배 심화, 경제 불안정을 낳는다. 부유국들은 IMF 와 세계은행의 전체 투표권 중 60%를 장악해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장 중요한 영역 18 개 분야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결국 미국의 400 대 부자가 미국을 장악하고, 미국을 비롯한 몇몇 부자국가들이 세계경제를 장악하는 <1 대 99 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위대한(?)미국에 살고 있는 99%의 우리는 행복하다고 해야 하나?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